

피난 생활 보고 · 避難生活報告 38

일생의 눈물을 다 쏟아서 말라버린 줄만 알았던 눈물이 아직도 남아있었나 봅니다. 지금까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피난물자를 서로 나누던 형제자매와 헤어져야만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알고있다해도 슬픔이 밀려옵니다. 어쩌면 이대로 헤어짐이 반복되어 마지막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것만 같은 비장한 생각마저 듭니다.

내년 봄의 여행길을 나서기도 전에 한사람씩 차례 차례 각지로 떠나갑니다. 더 이상의 이별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물론 후쿠시마에서 다른 형제자매들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반 년 동안에 너무나도 많은 이별을 경험했습니다.

피난여행을 함께 해 온 성도님들이 후쿠시마 땅으로 모두 함께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도쿄에서 취직자리를 구하게 된 사람은 이곳에 남게 되었고, 가족이 살고 있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주간에 3 명이나 니가타(新潟), 그리고 규슈(九州)에까지 각지로 뿔뿔이 떠나갔습니다.

인생은 기쁨 반, 슬픔 반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지상의 나그네길은 많은 괴로움과 슬픔에 둘러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고통을 인내하는 중에 조금이나마 기쁜 일을 만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진 재해후 도중에 우리들과 합류하여 세례를 받고 우리보다 한 발 앞서 니이가타(新潟)로 독립하여 여행을 떠난 자매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남성은 이번의 피난여행에서 처음 만난 분이었습니다.

그 분은 목수인데 공동생활을 하는 동안에 과연 목수로써의 솜씨를 발휘해 캠프장의 여기 저기를 고쳐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살다보면 개개인이 지금까지 걸어 온 인생 여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분은 어쩌다가 묘하게도 우리들과 합류하게 되었고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공부도 출석하여 하나님 말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지진재해가 가져다준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분과 눈물로 인사하며 이별할 때 "그 곳에 가서도 교회에 출석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곳은

사람과 사람이 교차하는 인생의 교차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랫동안 교회임원으로서 교회를 받아들여오셨던 자매님도 아드님이 계신 곳으로 떠나 가셨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찢어지지 않으면 안되는 것인지, 저는 어느새 슬픔에 잠기고합니다.

「주님 아무쪼록 이 유랑의 무리가 떨어져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라는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또 다시 인생 항로의 기로에 서서 크게 키를 돌리려합니다. 내년 봄에 갑자기 세우게 되는 새 교회는 폐쇄된 고향을 눈 앞에 두고 잠시 날개 접어 에너지를 비축하여 마지막 목적지인 본향을 향해 날아오를 날을 바라며 기다리는 새를 이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전의 약 4분의 1인 50명 정도로 교회가 재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에 지치고 상처받은 우리들은 아래의 성경말씀과 같이 기죽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겠는지요.

이제까지 우리들의 피난여행을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봐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제 새교회에서 이렇게 일본 각지와 세계 사람들의 깊은 사랑을 이어가는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구입한 교회 부지도 지금까지 많은 국내외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의연금에다가 부족한 금액은 헌금을 보태서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제 40 장 28~31 절

9 월 29 일 이즈모(出雲)에서
사토아키라(佐藤彰)